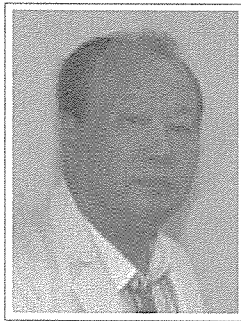




한·중·일 방사성동위원소 협력회의 및 산업 시찰

허 남
현대원자력(주) 회장



한·중·일 방사성동위원소 협력회의의 활동 개요

2006년도 한·중·일 방사성동위원소 협력회의가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도쿄(회의장: Tokyo Dome Hotel)에서 3국RI(협)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한국(18명), 중국(12명), 일본(53명) 등 3국 대표자 및 참가자 총 83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력회의는 한·중·일 3국이 순차적으로 갖는 회의로서 올해는 일본아이소토프협회가 주관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준비 사항은 Working Group을 통하여 실무적인 사항들을 사전에 협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한·중·일 협력협정서의 개정 시기를 맞아 그동안 있었던 3국의 현안 문제를 발표, 논의하고 협정문에 3국 대표가 서명을 하였으며, ② 일본아이소토프협회 및 일본가속기학회 등 61개 기관이 2006. 7. 5 ~ 7. 7(3일) 동안 연례 행사로 공동 주최하는 제 43회 아이소토프·방사선연구발표회가 일본청년관 국제홀에서 개최되었는데 한·중 발표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 ③ 한·중 방문단을 위하여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2006. 7. 6 ~ 7. 7(2일) 기간에 걸쳐 편성해주었으며, 이에 따라 의료용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관인 Daiichi Radioisotope Lab(Chiba), J-PARC(Japan Proton Accelerator Research Complex(Tokai), Riken Yoko-

hama Insititute(이화학연구소 요코하마분소) 그리고 와코(和光)에 있는 Riken RI Beam Factory를 각각 방문했는데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소들을 방문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꼈다.

한편 한·중 방문단을 위해 하코네 관광과 귀국전날 송별연회에서는 3국방문단이 그간의 석별의 정을 아쉬워하면서 내년 10월 중국소주(蘇州)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정겨운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한·중·일 방사성동위원소 협력회의의 활동

7월 4일(화) 오전 주요 활동부터 상세히 기술코자 한다.

Joint Convention (session A)에서는 각 협회의 방사선 이용의 협력 증진을 위한 현황과 제안 의제를 발표하는 세션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방사성동위원소협회를 대표하여 채



성기(한국방사성동위원소교육원) 원장이 'Korean Situation and Agenda' 라는 주제로 한국의 RI 이용 통계, 이용 진흥 현황, 방사선중조사증양등록센터 구축 내용 및 6ICI 준비 현황 등을 소개하였으며 제안의 제로는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설치하고 유지 비용을 1/3씩 3국에서 자금을 공동 부담하자는 것과 2006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9차 세계핵의학 학술회(WCNMB)에서 각 협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토의하고자 하는 특별 심포지엄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동 제안에 대하여 웹사이트 구축에 관해서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개발 및 운용비의 공동 부담을 하자는 의견보다는 3국이 각자 비용으로 개발하여 3국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선호하였으며, 세계핵의학 학술회 기간 중 특별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서는 중·일 양 협회는 동의를 표시했다.

이어서 중국동위원소협회를 대표하여 Fan Jihong 부회장이 'CIRA's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중국동위원소협회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11차 5개년 중장기 개발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이끌고 있으며, 중국 정부(과학기술부)의 신퇴 속에 원자력 기술의 응용 및 발

전 계획을 조직하고 비발전 분야의 민간 이용 계획을 조직화하고 이행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생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 논의 및 방사성 동위원소 관련 모임에 점점 참석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중국동위원소협회는 각종 규정과 지침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의 발행 업무 수행과 'China Industry Award' 지명권 획득에 따라 사업 개발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하고 국내(중국) 경영을 지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중국은 역시 국도가 광활하고 관련 산업의 투자자들이 너무 다양하므로 조사 체계가 완벽치 못하다는 것과 방사선 처리 과정과 RI 생산을 분명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RI 이용 통계는 상세하게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RI 관리 역시 정부의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들었다.

일본아이소토프협회를 대표하여 나가다키 시게노부(長瀧 重信) 상임이사가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JRIA'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일본아이소토프협회는 Public Benefit Corporation(PBC) 체제로 개편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는 PBC의안의 2006. 6. 2 공포에 따른 것이다.

동 PBC의안은 2년 내에 그 효력이 발휘되며 5년 유예 기간을 거쳐 현재단과 협회들은 PBC 또는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각에 속한 신설 자치위원회는 비영리 기관의 재산을 그대로 인정토록 제안할 것이라고 한다.

PBC의안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본아이소토프협회 내에 신설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5년 2월 이후 16번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동 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특수 계층이 아니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손해가 제공되는 공익이 무엇인가와 공공 손해의 비용이 PBC 총비용의 50%가 되거나 그 이상으로 하는 'PBC의 비용'에 대한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PBC인 일본아이소토프협회의 기능은 RI 생산, 제공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RI 이용 촉진과 안전성 확보 등 3가지 활동의 이론과 실용성을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학술협회, 영리 기관, 이용자, 핵의학 환자들, 국가 당국자 및 국제 조직 간의 조정자 역할도 수행한다는 것이다.

신설 위원회의 운영은 일본아이소토프협회장의 추천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일본협회의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국가 정책에 맞추어 방사선 및 RI 이용 분야에서 공공 수혜를 추구하게 된다.

일본의 방사선 이용 통계의 판매량 추이, 기관별 이용 기관 수, IAEA의 개인별 선원에 접근하는 위험 물

류 등을 소개하였으며 교육 훈련 과정과 협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출판물에 대한 종류도 소개하였다.

이제까지 논의된 3국 협력회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웹사이트 구축에 관해서는 2007년도 Working Group에서 상세히 논의 추진하되 웹사이트 구축 개발비의 공동 부담 문제는 3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upgrade한 후 3국이 이를 Networking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데 합의 를 보았다.

한·중·일 협력협정서 개정과 관련하여 중국은 당초 1년 주기에서 2년 주기의 개최안을 복안으로 가져왔으며, 일본과 한국이 1년안을 주장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있었으나 한국 측이 중국 측의 2년 주기의 안을 지지하면서 Working Group 모임을 적어도 1년에 한번 개최함으로써 행사 위주의 협력 회의 틀에서 탈피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실효성 있는 협력 활동이 가능하겠다는 당초 한국 측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 결과에 따라 차기 Working Group 회의 장소는 중국 소주(蘇州)에서 2007년 10월 15일부터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2008년도에는 6ICI가 2008년 5월 12일~16일 기간 동안 한국·제주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동 기간 중 한·중·일 협력회의도 한국에서 주최한다는 데도 합의를 했다.

각국의 Working Group을 4인씩으로 구성키로 하고 한국은 정중혁, 허남, 김종경, 오상욱의 명단을 선정하여 중국 측에 전달하였고, 중국은 2006년 8월 2일자 통지문에서 Chen Dianhua(CIRA 사무총장), Fan Jihong(CIRA 부회장), Zhu Nankang(CIRA 부회장), Guo Lili(CIRA 연락관)을, 일본은 Shigenobu Nagataki(상임이사), Yasushi Kawada(상임이사), Kenkichi Ishigure(상임이사), Tatseo Ido(상임이사)를 Working Group으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졌다. Working Group 의장으로 Dr. Chen Dianhua가 선출되어 앞으로 1년간 3국의 Working Group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

7월 4일 오후, Tokyo Dome Hotel Cynthia Room에서 한·중·일 방문단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 논의된 한·중·일 협력협정서의 문안을 축조 논의하면서 최종 합의된 협정서 문안을 확정 짓고 동 협정서에 3국대표가 서명하였다.

연구 발표회 활동

이번 우리나라에서는 총 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 'History of Utilization of PET in China, Japan and Korea'란 주제에 이명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의 이명철 교수가 'History of PET Utilization in Korea'란 주제

로 발표를 하였으며, 이어서 중국의 Mr. Yunchuan가 'The Current Status of PET Service in China'란 주제에 대하여, 일본의 Junji Konishi가 'History of Clinical PET in Japan'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였다.

특히 이명철 교수가 강조한 부분은 중국은 PET 검사료가 150만원 정도이고 우리나라도 100~120만원 정도의 수가를 받았는데 최근 보험 수가를 적용하게 되어 680,000원 정도로 낮아졌고 일본이 약 ¥ 70,000을 받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감안한다면 일본은 너무 저가의 검사료를 받는 것이어서 핵의학전문가들이 정부를 잘 설득해서 적정 수가를 받아야만 새로운 장비의 개발이라든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이 생기는 않겠는가면서 저가 검사료의 우려를 나타냈다.

2. 'Status for Radiation Technology(RT) for Industrial Use'란 주제에 중국의 Shu Weiguo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표로는 한국의 국일현 박사가 'The Status of RFT in Korea and Future Expectation'에 대해서, 중국의 Fan Jihong 교수가 'Present Development of Radiation Processing in China'에 대해서, 일본의 Yoshikazu Yokono가 'A Topical Industrial Use of Radiation Technology'에 대해서 각각 발표를 하였다.

3. 한·중·일 삼국의 공동 제목의 발표 내용이 7월 5일 일본청년관



국제회에서 제43회 아이소토프·방사선 연구발표회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는데 'Current and Future of PET in China, Japan and Korea - Utilization of PET for Medical Diagnosis'란 주제로 Shigenobu Nagataki가 좌장을 맡고 한국의 국립암센터의 강건욱 박사가 'Current and Future of PET in Korea'란 주제로, 중국의 Ma Yunchuan이 'PET/CT-Is there a role in Clinical Management of Diseases?'란 주제로, 일본의 Hideo Murayama가 'Next Generation PET Scanner Toward High Resolution and High Sensitivity'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였다.

특히 강건욱 박사는 유창한 영어로 훌륭한 발표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질의에 척척 대답을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부러움을 샀을 뿐더러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기량에 대해 일본 및 중국 대표로부터 칭찬을 들어 한국방문단 모두가 커다란 자부심을 갖기도 하였다.

4. 'Status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Radioisotopes in China, Japan and Korea'의 주제에 대해 국일현 박사가 좌장을 맡아 수고를 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 한현수 박사는 'Production and Supply of Radioisotopes in Korea'의 주제로, 중국의 Luo Zhifu 교수는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n R&D and Production of Radioisotopes in P.R.China'의 주

제로, 일본의 Yoshihide Nakamura는 'Current Distribution Status of Radioisotope Products in Japan'의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5. 'Status of Food Irradiation in China, Japan and Korea'의 주제는 Norio Kurihara가 맡아 좌장으로 수고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조철훈 박사는 'Current Status of Irradiation Application and Further Development Plan in Korea' 중국의 Chen Hao 교수는 'Present and Future of Food Irradiation in China', 일본의 Masakazu Furuta 교수는 'Current Status of Food Irradiation in Japan'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는데 질의 시간에 국일현 박사는 일본 발표자인 오사카 대학의 조사 식품에 대한 잘못된 식견을 질타하였고 책임 있는 과학자의 양심을 요구하는 논쟁이 있었으며 Kurihara 좌장은 국일현 박사의 지적이 옳다며 더 이상의 논쟁을 막았다.

6.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by Radiation in China, Japan and Korea'란 주제의 좌장은 Fan Jihong이 맡아 수고를 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이면주 박사는 'Research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with Radiation in Korea' 중국의 Mao Benjiang은 'Process and Equipment of EA-FGD in China' 일본의 Takaji Kojima는 'Electron Beam Treatment of Organic Pollutants in Flue Gas / Waste

water'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였는데 중국과 일본방문단으로부터 많은 질문 공세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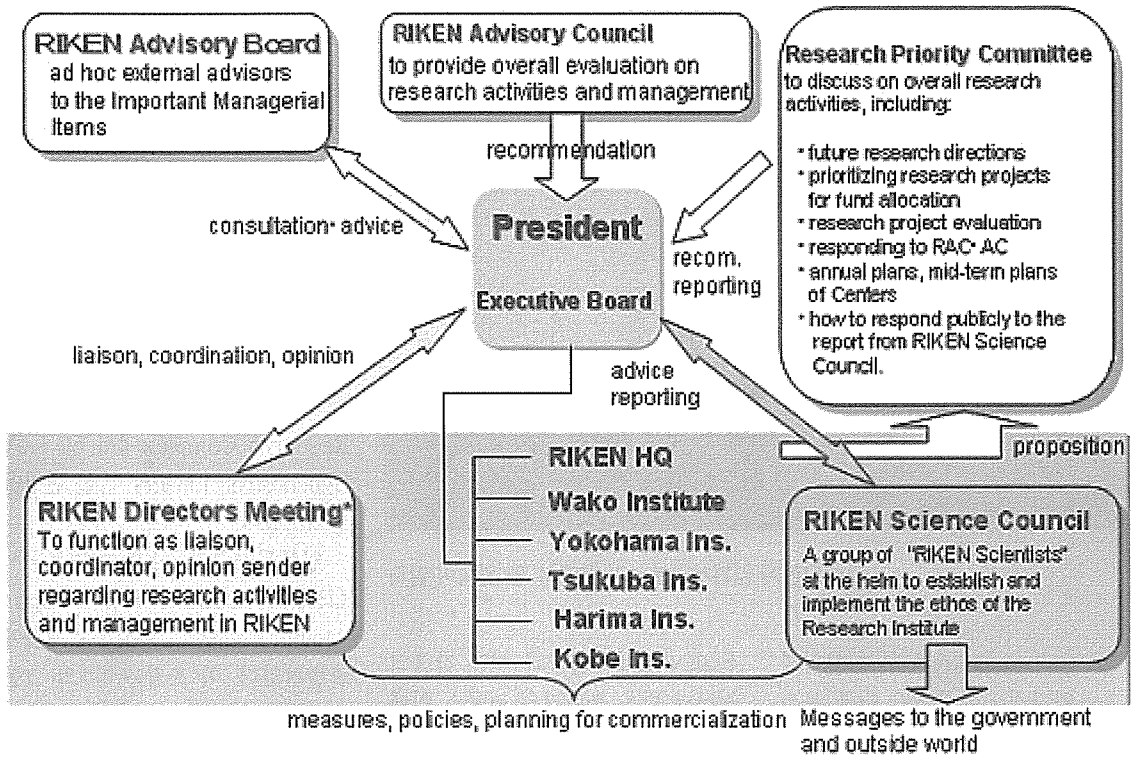
산업 시찰 활동

7월 6일, 7일 양일간은 산업 시찰을 했는데 6일 오전 첫 번째 방문지는 지바에 있는 제1라디오아이소토프 연구소였다. 이 연구소는 1968년도 벤처 기업으로 출발하여 65개의 협력 회사와 177명의 직원을 두고 34종의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는 알찬 기관임을 확인하였다.

그날 오후엔 Riken Yokohama Institute를 방문했다. 이 연구소는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complex와 단백질 및 유전자 분석 등의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연구소였는데 오가와 도모야(小川智也) 연구소장이 한·중 방문단체 직접 브리핑을 해주었다.

독립행정법인인 이화학연구소(理化研究所)는 와코(和光)의 중앙연구소를 위시하여 전국에 7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물리, 화학뿐만 아니라 생물학, 의학 등 자연과학을 총망라하는 연구 기관으로서, 특히 2000년 건립된 요코하마 연구소는 유전체, 단백질 연구를 위시하여 생물학·의학연구 중심 기관임을 강조하였다.

연간 8,000억(880억엔)의 예산을 운영하는 RIKEN(독립행정법인 이화학연구소)의 조직에서 자문 기구의 역할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그림〉 독립행정법인 이화학연구소 이사장의 보좌 체계

Research Priority Committee에서는 미래의 연구 방향, 단기·중장기 계획, 연구 결과 평가 및 연구비 배정에 대한 보고와 건의를 하며, 특히 외국의 우수 전문가 15명을 포함한 Riken Advisory Council을 연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는 이사장한테 직접 권고를 한다.

특히 이번 산업시찰에서 이화학연구소 중 요코하마 연구소와 와코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 체계를 들여다본 것을 포함하여 900 MHz NMR을 포함 20기의 NMR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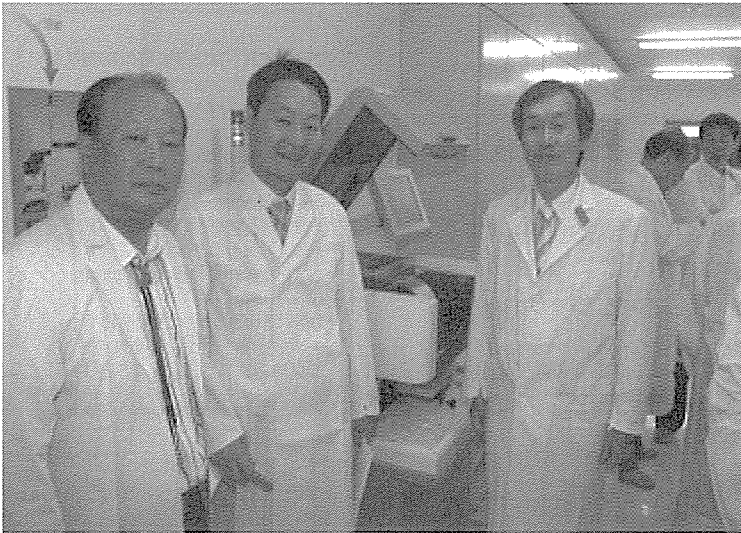
비가 설치되어 있는 세계 최대급 NMR 시설, 대규모DNA 시퀀스 시설 등을 직접 견학한 것은 좋은 경험이라고 느꼈다.

2003년 10월 특수법인에서 독립 행정법인으로 발족할 때부터 현재까지 초대 이사장인 노요리 요지(野依 良治) 박사의 다섯 가지 Initiative를 오늘날까지 강조하며 그 정신을 이어 가는 전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 ① Vicinity of Riken (일반인 대상 Riken의 이미지 및 연구 흥

보)

- ② Maintaining Riken's Outstanding History of Achieve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우수한 연구로 Riken 정신의 유지)
- ③ Riken that Motivates Researcher (선진 연구자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
- ④ Riken that is Useful to the World (산업과 사회에 유용한 연구 개발)
- ⑤ Riken that Contributes to



고속유전자 염기서열분석기 앞에서. 맨 왼쪽이 필자

Culture (Riken문화의 함양과 인간적·사회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

RIKEN은 2005년 10월 현재 52개국 336명의 외국 연구자(전체 연구자의 약 10%)가 있으며 향후 전체 연구자의 30%까지 늘릴 계획으로 각종 혜택과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 세계 17개 기관과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견학 중 노요리 이사장의 일반인 대상 RIKEN 알리기 홍보와 RIKEN 문화 창출에 힘쓰고 있는 흔적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는데, 리켄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속유전자염기서열 분석기는 그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또한 뉴턴의 사과나무를 영국에서 구해와 정원에 심어놓은 것이라

든지 인조예술대학과 제휴 작품의 전시와 밝은 분위기의 연구소 인테리어는 인상적 이었으며 연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몰입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7월 7일 오전은 와코연구소 니시나(仁科) 가속기연구센터의 방사광 시설 등을 견학하였다. 견학에 앞서 여기서도 야노 야스시게(矢野安重) 센터장이 직접 한·중 방문단에게 브리핑을 해 주었는데 리켄와코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 전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책임 있는 연구자의 안내로 연구소 구석구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특히 브리핑 중 1937년 세계 두 번째로 사이클로트론을 제작한 니시나 박사의 일대기를 보여줌으로써 일본 과학의 역사에 대한 강한 긍

지와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소는 1917년 설립되었으며 2006년 4월 1일 현재 1,520명에 21,015백만엔의 예산을 쓰고 있다. Human Genome Project, Protein 3000 Project, 궁극의 원자핵 모델의 구축, 원소 기원의 해명 및 새로운 산업 이용에 활용하고자 주요 연구 과제가 수행되고 있었다.

산업 시찰의 마지막 코스로 Tokai에 있는 Japan Proton Accelerator Research Complex에서 50 GeV Synchrotron Linac의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다.

일본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공사(JNC)를 2005년에 합쳐 Japan Atomic Energy Agency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 조직은 4개의 그룹(Management Sector, Project Promotion Sector, R&D Institutes /centers, R&D Directorat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소립자 물리, 원자핵물리, 물질과학, 생명공학, 원자력공학 분야 등 최첨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중·일 방사성동위원소 협력회의 활동 결과

2002년 한영성 전임 협회장의 Initiative로 출발해서 2003년에 일본에서 처음 서명된 한·중·일 협력협정서에 근거하여 매년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조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국을 순회

하면서 한·중·일 협력회의를 개최해왔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발표 내용이 충실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보완할 점도 있다고 느꼈는데 손님을 초청해 놓고 잘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 행사 위주로 노력이 치우치지 않았나 반성해 보면서 이제까지의 행사위주의 한·중·일 협력회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방사선 관련 기술의 다양한 협력 연구 단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되었다.

금번 한국방문단의 규모는 18명으로 협회의 임·직원 및 논문 발표자로 구성되었고, 방문 기간 동안 우리 방문단은 회의 진행 등을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협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한·중·일 협력회의가 진행되었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회의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선정된 공동 주제의 각국의 6편 논문 발표에서도 논문의 질이 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표력도 우수하여 중국 및 일본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관심을 받았고 그들로부터 부러움도 산 것은 한·중·일 협력회의의 전도를 밝게 하는 징조들이라고 할 수 있다.

RI(협)업무와 밀접히 관련이 많은 정읍방사선연구원의 국일현 박사는 한·중·일 3국이 만들어 놓은 활동 무대에서 마음껏 연구 결과를 논할 수 있어 RI(협)의 공간의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고백하기

도 하였다.

또한 일본의 산업 시찰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방사선 기술의 발전을 위해 일본이 막대한 시설 투자와 이런 시설 속에서 노벨상에 도전하는 연구원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자국이었고, 우리나라도 기반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방사선 기술 발전에 힘써야 하는 숙제가 과제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와코연구소 방문시 배포된 주기율표를 보니 과학기술홍보재단에서 배포된 것인데 “한 가정에 1매씩 갖자”는 표어와 함께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사진과 Riken연구소에서 발견한 새로운 원소 113번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미래에 과학기술자가 되겠다는 꿈을 심어주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새로 서명한 협력협정서에 따라 한·중·일 협력회의가 2년 주기로 개최기로 된 반면 Working Group 모임은 1년마다 개최함에 따라, 2007년 10월 15일부터 중국 소주(suzhou)에서 Working Group 모임이 있게 된다.

이 모임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조성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3국의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게 될 터인데, 중국은 아직도 행사 위주의 협력 방안을 의중에 두고 있는 것 같아 계속 협의를 통해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협력의 틀을 가꿔 나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 생각

되었다.

이번에 협회가 제안한 의제 중 웹 사이트 구축과 관련해서는 특히 중국은 각국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방안 대신 3국이 자국의 프로그램을 Upgrade하여 이를 3국이 공유(Networking)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그 웹사이트에 어떤 내용을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폭발적인 협력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2008년 5월 12일~16일 간 6ICI가 한국(제주)에서 개최될 때 한·중·일 협력회의도 동시기에 맞추어 만남이 있게 되는데, 6ICI, CJK Congress 등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국제 행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도카이무라에서의 저녁 식사 때 여흥 시간을 가진 것과 귀국 하루 전 가진 송별연에서 중국 측 방문단의 젊은 과학자들과의 친교를 나누는 시간은 오래오래 기억될만한 추억이고 그들의 각오는 밝은 중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기뻐다.

끝으로 한·중방문단을 맞아 도착에서부터 출발할 때까지의 완벽 한 준비와 세심한 배려에 대해 일본 아이소토프협회측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